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김 상 태 | 경희대 입학관리처 부처장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의 사회라고들 한다. 21세기 이전 사회의 가치 창출의 중심적인 도구가 굴뚝 산업인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식기반의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지식, 앞서가는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 도구가 될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평범함'으로는 경쟁에서 이겨내기 어렵게 되었다. '무엇인가 독특한',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창의력'을 지니지 않고서는 '지식정보화 사회',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학문의 연구와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 배출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으며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다.

그 동안 경제적 입시구조는 전인교육적 평가체계의 부실화로 인한 일선 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과열 과외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지나친 사교육비의 부담, 소질과 적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학생 선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정부와 교육관계자들은 경쟁적인 입시구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력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 노력은 무시험전형의 확대 실시 및 다양한 특별전형의 개발로 과거의 획일적인 전형방법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선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대입전형의 다양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입전형의 다양화가 의미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수능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같은 학력관련 평가도구 이외에 추천서, 적성, 학생의 재능, 수상경력 등 학업관련 자료 이외의 다양한 전형요소들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요소의 다양화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등을 학생선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전형의 실시 등 전형유형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전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개인의 특기·적성·소질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상적인 측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사회보상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특별전형은 그 취지가 부모의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과 기여에 따른 보상적 차원 또는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자녀에게 대학입학의 특별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감안

하면 대학입학이라는 교육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보다는 조세 감면 등과 같은 여타의 사회보상적 차원의 제도로써 해결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소질·적성·특기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의 다양화 방안의 요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수재능보유자 선발은 이렇듯 학생의 소질·적성 및 특기·재능을 전형의 근거로 삼는 특별전형의 한 형태로서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로의 인재 양성과 배출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나라 국민의 교육수준 정도이다. 대중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이 그 국가의 기초체력 정도를 상징한다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많고 적은은 타 국가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가, 위기상황을 타파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쾰리히 공과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적 자질을 가진 인재였지만 입학당시 수학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이 대학에 입학할 만한 성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대학에서는 수학과목의 탁월한 성적을 인정하여 입학결정을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20세기의 위대한 천재 과학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만약 수학 이외의 타 과목의 저조로 아인슈타인이 쾰리히 공과대학에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다면 20세기가 인정하는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학은 이렇듯 아직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지 못한 재능, 또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타 분야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여 국가사회의 공익 실현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학 이외의 다른 대체적 교육기관 및 인재양성 기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이제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대학의 바람직한 인재양성 기능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취지 하에 실시되는 각종 특별전형을 두고 '수능을 치러서는 해당 대학에 도저히 입학할 수 없는 실력인데도 일정 분야에 특기가 있다 해서 특기생으로 입학했다든지' 하는 문제로 세간에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특별전형의 실시가 정상적으로 노력하여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또는 대학들이 뚜렷한 교육목표 없이 인기에 영합해서



평균적인 잣대가 아닌 특수한 잣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대학의 특별전형 시행방법 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소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발전적 측면에서 재능 및 특기에 의한 특별전형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다만 대학에서 특수재능보유자 선발을 활성화 하고자 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뚜렷한 교육목적과 시행방법 상의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이 철저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에서의 재능과 관련된 특별전형의 활성화와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전형의 실시목적 및 기준방법 등의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해 대학별로 선발하고자 하는 특수한 재능의 내용에 비추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대학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특수재능 또는 특기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별전형 대상이 되는 특수재능의 내용과 범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되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특기나 재능에 대한 관점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적 가치의 준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특별전형의 형태로 학생을 선발할 정도의 특기나 재능은 기본적으로 특기나 재능이 장래 국가의 발전과 사회 공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한 유희에 가까운 재능, 또는 사회적 기여도가 극히 낮은 재능과 같은 것을 단지 현재의 인기도에 따라서 또는 대학의 홍보성 정책에 의하여 특수재능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특수재능이나 특기를 가진 자를 선발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그 재능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특기자 전형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특수한 재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는 자원을 갖

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선발은 오히려 재능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재능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특수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수학이 가능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개인의 특수한 재능들이 선발의 주요 요건이 되지만 특수재능의 유무만으로 입학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현재의 특수재능의 정도를 선발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장래의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특수재능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는 재능의 인증기관, 대회의 규모와 질 등 대외적 기준이 사용되어 기준의 공정성 문제는 다소 벗어날 수 있으나 재능의 발굴 및 육성이란 차원에서는 소극적이다.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중점을 둘 경우 대학 당국의 내부적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발절차가 공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간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최소자격을 인증한다든지 대교협과 같은 대학협의체를 통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재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의 고유한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학습성취도와 관련된 기준, 즉 수능과 같은 시험성적이나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성취도와 같은 요소에 의해 선발되는 일반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한 선발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비록 사소한 잡음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재능에 기초한 선발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의 배출이라는 측면에서나 현재의 획일화 된 입시구조에서 오는 고등교육의 정상

화를 위한 대입전형의 다양화 측면에서나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대학 이외에 마땅히 없는 현실에서 대학이 보편적인 학습능력과 소양을 가진 일반학생들과 함께 전문적이고 차별화 된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원으로 키워 나가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는 마땅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수재능보유자 선발에 있어 특히 유념할 점은 국가 사회 발전과 공익에 기여하는 재능이라 할 수 없는 갖가지 기예를 가진 자를 학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선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일반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라 할 수 있다. 대학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특수재능보유자 선발이 사회적 통념과 정서에 의해 납득될 수 있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재능있는 학생을 선

발한다면, 재능과 소질에 기초한 특별전형의 활성화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력에만 의존하던 획일적인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학력 외의 다양한 전형자료들을 선발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축적이고 전인적인 학생선발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 전형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실현할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김상태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 교무부 처장을 역임하였고, 입학관리처 부처장, 서울지역대학교 교무(입학)관리자 협의회 회장, 전국대학교 교무(입학)행정관리자 협의회 회장, 수도권지역 대입원서 공동접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